KRIHS POLICY BRIEF
국토정책 Brief
제 386 호 2012. 6. 18

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

민범식(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), 이왕건(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)

-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1990년대부터 '문화로부터 일상생활로', '전통으로부터 현대화로', '지역으로부터 세계로'를 내걸고 문화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옴
  - 이와 관련하여 '문화거점사업', '예술페스티벌행사', '예술촌 조성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', '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도시공간 유산화'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
  - 타이베이시 도시재개발사업처는 이와 별도로 도시재생과 결부시켜 문화활동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'도시재생전진기지'를 추진

- 이러한 문화사업의 대부분은 시가지 내 공공기관 이전적지나 보전해야 할 근대건축물 등 기존 도시공간 및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임
  - 기존 시가지 내에 산재된 공공건물과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접근성, 지역의 정체성, 문화공간 확보 수월성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1. 일상성 확보: 기존 시가지 내 건물과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생활 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
2. 장소성 유지: 지역사회 형성의 기반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적지나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
3. 소규모 공간 조성: 공공기관 이전적지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분산배치로 주민이용이 쉽도록 함

1.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

타이베이시 문화기반 도시재생정책(2000~2010)[1)]

■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체험 실천

- 1999년 문화사업 추진단을 설립하여 “문화로부터 일상생활로”, “전통으로부터 현대화로”, “지역으로부터 세계로”를 목표로 사업추진
- 2003년 문화창조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일상생활 속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 문화자산을 젊은 예술가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
- 2007년 타이베이시 문화시설개발재단, 타이베이 문화재단(TCF) 등의 추진조직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요소인 자본, 재능, 조직구성과 장소형성을 종합적으로 추진

■ 문화활동 일상화를 위한 공간결합

- 2010년에 들어서면 도시개발, 도시마케팅전략과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‘문화허브’, ‘창조클러스터’, ‘문화권역’이라는 공간개념이 도입됨
- 문화활동의 일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자연스레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, 이전적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 활력을 증대시켜 도시재생으로 연결

[표 1] 타이베이시 문화자산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접근

전 략	형 태	사 례
문화거점	• 문화생산과 소비의 혼합 •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는 복합적 활동 수용과 교육을 즐길 기회	• 시먼홍루(四門紅樓) 문화와 창조산업파크
예술페스티벌	• 페스티벌 기간에 국내외 예술 거래 • 페스티벌 장소에 공공미술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을 도입	• 타이베이 영화 페스티벌 • 타이베이 미술 페스티벌 • 타이베이 어린이미술 페스티벌 • 타이베이 변방미술 페스티벌
예술기지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	• 커뮤니티 속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의 장기체류 예술촌 조성 • 정부지원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한 문화와 비즈니스 활용성 결합	• 타이베이 예술촌 • 보장암 예술촌 • 초산예술촌 • 도심부의 도시재생전진기지(URS) • 창조구역을 위한 I-타이베이 프로그램
도시공간의 유산화	• 문화자산을 도시재생도구로 이용 •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재생 목표를 달성 • 영화장면이 되도록 문화자산을 활용	• 보피랴오 고건축물 역사지구 • 설탕산업문화공원 • 사사남촌(四四南村) 군부대 이전적지
거대프로젝트	• 지역의 사회, 경제,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대행사 추진	• 2010타이베이 국제화훼엑스포 • 2011 IDA 회의

1) Chien-yuan Lin et al. An Assessment of Cultural-l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in Taipei. 2011 ASPA Congress.

2.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

문화거점 조성: 시먼홍루(西門紅樓)

■ 시먼홍루의 시민문화공간화

- 시먼홍루는 1908년 타이완 총독부가 건립한 최초의 공영시장으로 현재까지 온전히 보존된 3급 고적(근대문화유산) 시장임
- 건물은 팔각루를 중심으로 십자형 구조로 팔괘의 동양사상을 표현하였다고 하며, 팔각루에서는 경극, 만담 등을 하였고, 1960년대에는 24시간 영화상영관으로 이용
- 1990년대에 들어 건물은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, 1997년 3급 고적으로 지정하고 이어 2007년 타이베이시 문화기금회가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본격 리모델링함
- 2010년에는 문화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'문예창작 꿈의 부화(孵化) 기지'라는 표어로 16개의 공방을 입주시켜 예술창작품이 바로 시민들에게 감상되고 판매되는 장소로 조성
- 구도심 내 시장이라는 위치적 이점과 고급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도입은 장소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을 활기 있게 만드는 기회로 이어짐

■ 시민에 접근하는 문화거점사업

- 시먼홍루를 문화활동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성공한 것은 서울의 명동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에 힘을 입은 바가 큼
- 그러나 동시에 근대건축물이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차별적인 품격을 갖춰 예술가들과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
- 단순히 문화전시관만이 아니라 창작기지와 이벤트광장을 둠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소의 활력을 증대시킴

[그림 1] 도심부 근대건축물(시먼홍루)을 활용한 창조기지 확보

내부역사전시관(1층)

문예창작 꿈의 부화기지(2층)

이벤트광장

도시공간의 유산화

■ 보피랴오(剝皮寮) 고건축물 역사지구

- 청나라 시대부터 노동자 위락거리로 형성되어온 항만지역으로 현재까지 원형에 가깝게 거리 및 고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음
- 기존 상인들은 도시정비 후 위락거리에 다시 입주하기를 바랐으나, 인접주민과 학교의 반대로 다른 용도로 정비하게 됨
- 타이베이시는 고건축물을 활용하여 창작전시, 영화촬영공간, 생활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장소적 전통을 유지

■ 사사남촌(四四南村) 군부대 이전적지

- 중국본토의 국민당 정부군이 이동하여 타이베이에 주둔한 부대 이전적지로 1981년부터 부도심현대화계획에 의거하여 타이베이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
- 이전적지에는 대부분 타이베이101 랜드마크 건물과 컨벤션센터, 도심고급아파트단지 등이 건립되었지만, 일부는 군인들이 살았던 생활상을 전시하는 공원으로 조성
- 낡고 허름하지만 소박한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주택 일부를 보존하고, 부도심 내에 당시의 역사적 실태를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적 장소성도 유지

[그림 2] 근대유산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의 정체성 보전과 문화체험공간화

전통위락거리를 문화전시공간으로 재생(보피랴오 역사지구)

도심부 군인숙수를 보전한 생활사공원 조성(사사남촌군부대이전적지)

설탕공사 이전적지를 '설탕산업문화공원'으로 조성

■ 설탕산업문화공원(糖廊文化園區)조성

- 1908년에 건설된 타이완총독부 전매국 소속의 설탕사업소가 전후 1945년에 국영기업체인 타이완설탕공사로 바뀜
- 타이완설탕공사는 외곽으로 이전하였지만, 이전적지는 설탕산업 전시관과 타이완 경극단인 민화유안의 사무실 및 리허설 장소를 포함하는 지역공원으로 제공
- 각종 전시와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의 철도차량, 설탕공장, 거주지를 함께 보전하여 지역적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함

시민과 함께하는 '도시재생전진기지 만들기(URS: Urban Regeneration Station)'

■ 도시재생전진기지 조성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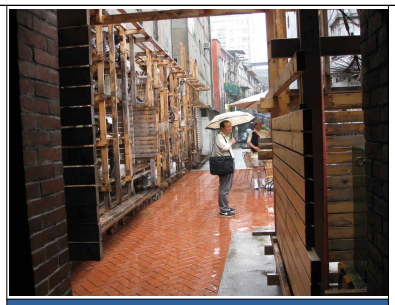
- 앞서 설명한 것이 문화국사업이라면 도시재생전진기지(URS)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시재개발사업처가 프로젝트를 담당
- 도시재생전진기지는 도시재생, 문화창조, 장소성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의 플랫폼이자 정보교류거점이며, 일하는 장소이자 지역커뮤니티공간이 됨
- 도시재생전진기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이라면 누구든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

■ 이전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전진기지로 조성

- URS13: 주석접시공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여가와 공연을 위한 팝음악장소 등 다중이용공간으로 개조됨
- URS21: 1930년대 건축된 담배전매공사 이전적지로서 장소이미지를 지역의 상징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
- URS27: 1989년 철도지하화로 버려진 지상부의 철도플랫폼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대형 녹색지대의 문화전시공원을 형성
- URS44, URS127: 청나라 시대부터 조성된 바로크와 모더니즘의 절충식 건물이 남아있는 디화가(迪化街) 전통시장거리(건어물과 약재상)를 보전하고 일부 건물은 매입하여 예술전시공간으로 만듦(디화가의 77개 근대역사건물 중 44번지와 127번지 가게를 매입하여 갤러리로 사용)

[그림 4] 도시재생전진기지(URS) 조성 사례

바로크형 건축물을 보존하여 활용한 URS 44



거리와 직접 개방된 URS 127

URS 127의 내부전시물로 남강대학 건축학과가 운영 중

3.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평가와 시사점

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평가

- 문화거점 전략
  - 구도심 내부에 위치한 시먼홍루 등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전시와 창작활동, 공연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활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
  - 주변 광장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젊음의 거리가 형성되고 있음
- 커뮤니티예술촌 개발 전략
  - 타이베이의 예술촌 사례는 기존 커뮤니티 속에 예술가들의 거주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게 하면서 주변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
  - 아직까지 지역활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,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서서히 지역주민과 교류협력하면서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
- 도시공간 유산화 전략
  -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는 정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, 타이베이의 사례는 공공건물 이전적지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음
  - 동시에 기존 시가지 내에 예술활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- 생활 속의 도시재생전진기지
  - '도시재생전진기지' 조성사례도 도시공간유산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공공이전적지 등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일상의 거리에서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만들고 있음

타이베이시 사례에서의 시사점

- **일상성 확보:**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
  -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문화활동 공간을 대규모화하여 도시외곽에 배치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태와는 달리 주민에 파고드는 접근방식을 채택함

■ **장소성 보전**: 지역 커뮤니티의 정체성 기반이었던 생산공간을 보전

- 과거 정부공사들에 의해 형성된 근로자 마을을 생활유적지(설탕산업공원, 담배공사, 사사남촌 등)로 보존하여 지역의 전통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

■ **공공자산활용**: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추가 재원 없이 문화공간을 조성

- 대부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공공기관의 이전적지를 활용하거나 정부재산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정부공사 자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, 새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대규모보다 소규모 공간으로 확보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

■ **지역참여 · 분담**: 지역참여를 기본으로 상호 협력하며 분담관리

- 설탕산업문화공원, 도시재생전진기지 등과 같이 인접대학이 관리하거나 주민들로 구성된 안내원이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등 지역사회가 유지 · 관리를 맡음

● 국토연구원 민범식 도시연구본부장 (bsmin@krihs.re.kr, 031-380-0253)

●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(wglee@krihs.re.kr, 031-380-0242)

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
전화 031-380-0114 팩스 031-380-0470 홈페이지 www.krihs.re.kr

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국토연구원 KRIHS